

최초 영화 동아리 만든 서울대생들, 지금 그들은?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기승(氣勝)'을 부리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이라는 글이 있다.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가 쓴 '소군원(昭君怨)'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제멋대로이니 이런 말이 생긴 것이다. 손주들이 병원에 다녀오더니 한 녀석은 코로나19에 걸렸다 하고, 한 녀석은 콧물이 줄줄 흐른다.

손주가 생기니 이제는 날씨도 걱정이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원래 기승(氣勝)이라는 단어는 '성미나 기세 따위가 굳세어 누그러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아내가 한 달 동안 누워서 지냈다. 후각도 잃고 미각도 잃어서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오래 건지를 못한다.

'기승을 부리다'는 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불별 더위가 기승을 부린 며칠 전 여름 스키치를 핑계 삼아 지리산 계곡에 다녀왔습니다"와 같이 쓴다. 그 외에도 '투기가 기승을 부리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다'와 같이 다양한 표현에 사용하는 말이다.

올해엔 더위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이 기승을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중부대학교어학과 명예교수 · 한국어문화학회 회장



조희문의 영화세상

영화평론가
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에 '알라성'이란 영화 동아리가 생긴 것은 1979년이다. 이 일은 당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당시만 해도 영화는 수준 낮은 구경거리였을 뿐 사회적·문화적 가치에 대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라성'의 등장은 영화가 사회 운동의 수단 이 될 수 있으며 '서울대 엘리트'들도 인정할 '뭔가 그럴듯한' 대상이라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 뒤이어 다른 대학들에도 영화 동아리들이 생겼다. 1980년대 부터 나타난 영화 운동의 시작이었고 오늘날의 영화 좌경화 현상의 뿌리이기도 했다.

영화를 시대적 소명을 담고 있는 새로운 매체로 부각시킨 것은 '서울대학교'가 가진 사회적 비판 때문이었다. 지금도 '서울대학교'는 성공과 권위의 상징이다. 수험생에게는 꿈에라도 가고 싶은 대학이고, 합격생을 낸 학교나 학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듯 자랑한다. 서울대생 학부모라면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따라서 서울대의 입학전형 기준은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 성공이라는 듯 평판을 받는 서울대생들이지만 명예와 자긍심도 평판만큼 높을까. 졸업생들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각계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욕보다는 돌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정재오 판사 한동훈 전 당 대표

흐트러진 대한민국을 복원하려 밤낮으로 분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다. 외교·국방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수호하고자 했던 윤상현·나경원·김민전 의원 등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야당들의 공세에 맞서 소신과 기개를 보여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나 김문수 장관·한덕수 대법관·최소수 이우장 당시 대법관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낯익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 드물게 기개 있는 경우로 꼽힌다.

이와는 달리 말과 행동이 다른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비난을 받거나 배신자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는 줄을 잇는다.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은 공직선거법 위반(2018)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받아 경기도지사 직을 날리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할 지경에 이르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취지의 피기환송을 안겼다. 법리 해석에 따라 내

린 결정인 줄 알았던 이 판결이 법조 브로커의 로비에 넘어간 협잡이었는지 모른다는 의혹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우리 사회 공정가치의 최후 보루라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협잡에 휘둘리고 더구나 그 대상이 권위와 명예의 상징인 대법관이라는 사실, 대법관이 추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현실은 충격 중의 충격이었다. 덕분에 이재명 전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넘겼지만 그것은 곧 이후에 벌어진 '이재명 파동'의 시작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건에 대해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린 유창훈 판사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이 결정은 또 한 번 이재명을 정치적 위기에서 건져 주었으며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을 깨뜨려 버렸다. 사법부의 판단이 이념과 진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에게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6·2재판부 3명의 판사 중 한 명인 정재오 부장 판사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토막내 부분별로 조합하는 논리의 역지를 부렸다. 눈속임하는 아바위꾼처럼 말장난으로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였다.

현재 대통령을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공수처장)도 서울대 졸업생이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자격이 없는데도 광란의 칼춤을 추었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어깃장을 놓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서울대 출신으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이고, 대통령을 결국 탄핵까지 당하게 한 첫 번째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대 동문이다.

문재인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출신 조국은 속과 겉이 다른 언행으로 파렴치한 속물의 대명사로 꼽히고, 의사이며 컴퓨터 기업가로 신성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은 오락가락 행보로 엉뚱하고 믿을 수 없는 인물로 평가받는 서울대 졸업생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34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 밖에도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은 많지만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는 경우보다는 비난받고 욕먹는 사례가 더 많다. 입학할 때는 모두의 자랑이었던 서울대생이 졸업 후에는 이기심과 권력욕에 빠진 채 머리만 좋은 헛똑똑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건가. 우리 사회를 이끌고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아예 불태워 버리려는 산불이 되기를 자청하려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 풀 때



데일리 Talk

김나운
산업경제부 기자

수도 없다. 전통시장 보존 구역 반경 1km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 항목들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했을 뿐더러 대형마트도 추락시키고 있다. 실제 국내 전통시장은 2013년 1500여 곳에서 2023년 기준 1300곳으로 200곳가량 줄어들었다. 대형마트도 2019년 423개였던 매장 수가 작년 5월 기준 372개로 줄며 얼얼 약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가 쉼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 원으로 오히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 원)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식료품 구매액이 평균 8770만 원으로 그렇지 않은 일요일보다

130만 원 많았고, 슈퍼마켓은 1920만 원으로 110만 원 많았다. 또 온라인몰 구매액은 2015년 180만 원에서 2022년 8770만 원으로 48.7배가 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행되는 동안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대형마트와 달리 공휴일 영업은 물론이고 심야영업·새벽배송이 자유롭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오프라인 쇼핑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온 이커머스 플랫폼은 최근 식품 전문관을 만들거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형마트의 강점이자 차별화 전략 중 하나인 신선식품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이뤄졌지만 갈 길이 멀다. 전국에서 △대구와 충북 △부산 △경기 의정부·고양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서울은 대형마트가 많지 않거나 주말에 장을 보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에 미친 효과가 미미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역주행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제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대상을 마트·기업형슈퍼마켓에서 아울렛으로 등으로 넓혀 나가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여 년간 대형마트를 몰아냈던 의무휴업이라는 족쇄가 대형마트의 성장세를 꺾고 서서히 골병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에 규제 강화라는 카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해법이다. 전통시장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 산업을 죽이면 안 된다. 법 시행 10년 동안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면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시간은 많이 흘렀고 대형마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 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때다.

nykim@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논설실장 박선옥
인쇄인 임재형 편집국장 박용준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년 240,000원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